

세션 1: 해안공동체와 식생활과 문화: 생태문화적 접근

중국 랴오허강 하구의 해양 식재료 및 민속음식 풍습의 생산적 보호

장 송 (중국, 중국식량발전연맹)

중국의 랴오허강은 랴오닝성과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강이다. 최근 이 강은 “9개 강의 바닥”이자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라고 알려졌다. 강과 바다를 따라 펼쳐진 지리적 환경과 독특한 하구의 자연 및 생태적 자원들을 가진 랴오허강은 연안 어부들, 즉 “고대 가마우지 (ancient fishing geese)”라는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의 발생지였다.

고대 가마우지는 바다를 향해하는 어부들이다. 이들은 고대 랴오허강 하구에서 살던 특별한 생업 집단을 구성한다. 이 어부들은 대양에서 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조수의 이동에 따라 해안 지대와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하구의 해변과 얽은 바다에서 새우를 잡으며, 봄과 가을의 기러기들처럼 매년 어업과 수렵으로 생계를 꾸린다.

중국과 전세계의 연안지역 강과 하구에서 가마우지 어부들의 생계는 오랫동안 멸종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랴오허강 하구에 있는 얼제 도랑(Erjie Ditch)에서는 여전히 바다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활용을 반영하고 고대 어업 및 수렵 활동의 잔재로 간주될 수 있는 놀라운 가마우지 문화를 보존하고 쌓아왔다.

1. 랴오허강 하구 해양자원의 특징

랴오허강 하구의 해양자원은 하이허강과의 교차점에서 형성된다. 이곳의 해양자원, 식량자원, 음식문화는 국내외 해양지역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닷물의 염분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수온은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유속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수질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다.

게다가, 해변과 토사는 주로 현지어종, 새우, 게, 조개 등 맛과 선도를 가진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2. 랴오허강 하구 해양음식재료의 가공과 활용

랴오허강 하구 주민들의 해양음식재료 보관창고는 백 년 이상 동안 전해져 내려온 염장, 염지, 건조, 훈연 등의 가공 기술을 주로 사용해 햇빛에 말린 새우껍질, 새우기름, 새우디핑소스, 백반 건조 해파리와 같은 상품을 만든다.

푸더휘 문화통신개발사(Fudehui Culture Communication Development Co., Ltd.)는 가마우지 문화의 음식 전통을 전수받아 지역의 “선장 요리”와 “여성 선원 요리”를 발견하여 체계화하고 랴오허강 생선 가정식 요리를 개발하는 데, 그 중에는 해파리 스투, 조개 가지 요리, 말린 대나무순 요리,

2021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매운 계수프와 그 외 중국 동북부 지역의 유명한 요리들이 있다.

랴오허구 어부들의 요리는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유지하고 최대화하기 위해 죽은 것을 먹지 않고, 어찌다가 한 번씩 먹지 않으며, 만들면서 즉시 먹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식재료 선택 개념을 따르는 동시에, 신선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소금, 얼음, 햇살, 발효 등의 보관 및 가공방법을 사용했다.

위에서 언급된 식재료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협동적인 관계와 식습관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보존과 전승이 엄청난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식사 도구, 가열 기기, 난로, 의례와 축제 물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3. 랴오허강 하구 해양문화의 전승과 지속가능한 개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속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발행하기 위해, 랴오허 민속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동적인 전수와 정적인 전시를 모두 활용해 가마우지 문화의 9가지 부분, 즉 의복, 음식, 생활, 여행, 낚시, 가축 사육, 농사, 집(jia), 뽕을거리를 보여준다. 박물관은 출장요식업체처럼 운영하며 문화유산을 생산적으로 보호 및 전수하고, 박물관을 테마로 한 식당을 선양, 선전, 칭다오, 베이징 등지에 세웠으며, 랴오허구 어부들의 음식을 홍보하고, 고대 가마우지 문화를 전파하며, 유산을 자원으로, 그리고 자원을 자산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0년, 관련 음식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미술랭을 받은 동북요리가 되었다.

우리는 해양음식재료, 해양환경, “가마우지” 문화의 보호, 전승,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호 단체를 설립했다.